

사회

학교는 폭력 감시기능 상실했다

광주 숨진 중학생 9개월간 폭행 당하는 동안 교사들 몰라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강력단속 부당

지난 29일 목욕 매 숨진 광주 모 중학교 2학년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9개월 여 동안 교실, 복도 등지에서 무려 29차례나 폭행·금품갈취를 당했음에도 학교측의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교육계는 이런 학교폭력은 특정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은밀하게 '진화'하는 학교폭력을 간과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교단과 폭력에 관대한 풍토를 짚어고치지 않는 한, 폭력피해 학생들을 또 다시 사지(死地)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학생인권이 과도하게 부각된 탓에 학생들에게 팔꿈치 펴기조차 시킬 수 없는 교단의 무력감도 작용하고 있다.

◇학생 생활지도 공백=이번 A군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결과 학교에서

폭력이 빈번하게 자행되고 집요했음에도 같은 반 친구는 물론 학생들은 '쉬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담임 교사는 물론 학교측의 소극적인 대처도 화를 키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A군의 담임 교사는 "성적 문제를 고민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폭행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무지와 소극적인 대응은 A군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부모가 폭행피해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학교측이 모른 척하거나 안이하게 대처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폭력피해를 경험한 학부모 김모씨는 "중학생 아들이 예전에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 담임 교사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관심을 당부했는데 또 다시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토로했다.

◇가해 학생은 남고 피해자는 전학=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김우경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2006년 이후 5년간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자 현황에 따르면 광주 초중고의 경우 지난 2006년 201명이던 가해자가 지난해 956명으로 4배 늘었다. 전남은 같은 기간 432명에서 775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광주지역 폭력 가해 학생은 956명으로,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학생(296명)이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으며, 퇴학처분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전남지역 가해 학생수는 775명이었으며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4명이었다.

이는 제도상의 한계 때문이다. 현재 왕따를 포함해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에겐 전학, 10일 이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특별 교육, 사회봉사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고등학생은 법적으로는 퇴학도 가능하지만,

퇴학은 거의 사문화(死文化)된 상태이며,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은 제도적으로 강제 퇴학이 불가능하다.

◇무기력한 교단=교사들은 교내 폭력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도 강력한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맞물려 지난해부터 학생 생활지도에 적극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교고 교감은 "학생인권법 신 고선터를 만들어 놓고 교사들과 학교의 문제를 신고하려는 마당에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에는 교사의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폭력과 왕따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광주 한 중학교 생활부장인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안심하고 담임 교사, 학교에 얘기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는 생활지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이젠 학생이라고 안 봐준다"

경찰 '학교 폭력과의 전쟁' 나서

구속수사 확대

경찰이 1만2000명에 달하는 전국 외근 형사를 동원해 학교 폭력과 전쟁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광주와 대구 중학생 사건으로 불거진 학교 폭력 문제를 가장 시급한 민생 치안 현안으로 보고 집단 폭행이나 금품갈취 등 상습적인 교내외 폭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은 지난 31일 16개 지방경찰청 수사·형사과에 보낸 '학교폭력 단속활동 강화 지시'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하달했다.

경찰은 우선 학교 폭력 우범지대인 학원가, 공원, 학교 주위, PC방, 오락실 밀집지역 등에 외근 형사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폭력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학원 수업 종료 시간대에는 인

근에 형사기동대 차량을 배치해 불법 행위를 예방·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집단 폭력이나 금품 갈취 등 학교 폭력 행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신병 처리도 더 엄격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학생 신병이라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훈방 처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불법행위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구속 수사 사례를 늘리기로 했다. 학교 측과 협조해 일진회 등 교내 불량서클도 해체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부터 학교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은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학교안전 강화와 교육 선진화를 위해 추진해 온 초·중·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14개 제·개정 법안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



함바 비리 전 해경청장

향소심서 징역 10월로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돼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이길범(57)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1심(징역 1년6월)보다 낮은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받았다는 2500만원 중 2000만원은 의심의 여지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청장은 유죄로부터 여수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을 수수할 수 있게 강경길 전 여수 해경서장에 게 건네준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승년회서 친구에 가스총 발사

○친구들과의 승년회에서 사소한 말다툼 끝에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발사하고 주먹을 휘두른 20대가 경찰서 항.

○1일 광주관산경찰에 따르면 폭력행위 및 흉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모(23)씨는 이날 새벽 1시에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 아파트에서 친구 안모(23)씨를 향해 가스총을 발사하고, 수차례 폭행했다는 것.

○김씨는 경찰에서 "지난 12월 초에 나이트클럽에서 한턱냈으니 이날 화비는 빼달라"고 했는데, 안씨가 분위기를 망치려며 집에 가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며 후회.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1일 허태욱(왼쪽에서 두번째) 광주 북부경찰서장이 경찰서 사회의실에서 지난 29일 발생한 중학생 사망사건과 관련, 수사팀과 함께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9차례 구타·갈취... 망나니 중학생 셋 있었다"

북부서 중간수사... 학교측 방학 앞당겨 사건 은폐 여부 조사

지난 29일 광주 한 아파트 계단 난간에서 모 중학교 학생 A(14)군이 목매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A군이 같은 학교 다수의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태욱 광주 북부경찰서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A군이 3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폭력을 당해온 사실이 다수 학생 진술 등에 의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른 반 학생 B군을 입건했으며 동급생 1명과 선배 1명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B군은 지난 4월부터 20차례에 걸

쳐 교실과 복도에서 이유없이 A군의 머리, 팔, 얼굴 등을 때렸으며 7차례에 걸쳐 학교매점, 화장실 등에서 돈과 담배를 빼앗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2명도 A군을 때리거나 금품을 빼앗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A군의 휴대전화에는 돈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이 숨지기 전 혼자 아니었을 가능성 등 유족이 타살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숨지기 전인 지난 28일 A군의 하교 이후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5시47분께 A군이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후 폐쇄회로 TV에 찍힌 학생 3명을 조사한 결과 "2명은 해당 아파트에 사는 학생이었고 외부에서 방문한 학생 1명 역시 A군과 뚜렷한 관계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 서장은 "현장에서 발견된 상의 단추는 구조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이 심전도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고 현장 주변에 있던 두 종류의 담배꽂이는 국과수에 감정의뢰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일 오전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시각과 폭력 흔적, 타살 가능성 등도 광범위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A군이 시험이 끝날 때

마다 고민했고 1학기에 성적 고민을 하다가 가출한 적이 있는 점, 지난해 12월 성적표가 나오기 전 어머니에게 시험을 잘 봤다고 거짓말한 적이 있다는 주변 진술과 사망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 학교측이 A군 사망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방학을 하루 앞당긴 점에 대해 학교폭력 등을 은폐하려 했는지, 학생들을 회유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A군의 유족들은 "아파트 폐쇄회로 TV 등의 정황을 볼 때 A군이 숨지기 전 혼자 아니었을 가능성, 타살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찰에 정확한 사망 경위조사와 부검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

2학기 들어 매일 괴롭혔다

"오죽 했으면..." 눈시울 붉혀

장례식장 표정, 부모·친구들 반응

아파트 난간에서 목매 숨진 광주 모 중학교 A군이 평소 학교폭력에 시달렸다고 경찰이 발표한 1일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에는 방학중임에도 친구들과 교사, 친척들로 북적였다.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에 며칠을 한숨도 못 잤다는 A군의 아버지는 "지난 30일 아들 친구들이 영안실에 찾아와 아들의 학교폭력 피해 실상을 알려줬다"며 "종손인 외아들의 여울한 죽음을 진실도 모른 채 물어버릴 뻔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아들의 죽음을 성적 비관으로만 몰고가려 한 학교측과 경찰이 원망스럽다"면서 "또다시 학교폭력으로 인한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아들이 죽게 된 동기가 진실 그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장례식장을 찾은 한 학생은 "A군처럼 당하는 아이들이 한 둘이

아니다"며 "오죽 힘들었으면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했겠느냐. 나도 무서운 생각이 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단짝친구였다는 학생은 "올 2학기 들어 거의 매일 B군이 담배를 구해 오거나 돈을 빼앗으며 A군을 괴롭혔다"면서 "반항하면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A군의 아버지에 게 이 같은 진술을 했다는 또 다른 학생은 "안 사오면 두들겨 맞는다"며 "미성년이어서 어떻게 사오냐고 그러면 '앵벌이 때와'라고 시킨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한편, A군의 아버지는 A군이 학교폭력에 시달렸다고 경찰이 발표한 것과 관련, 사망이전 어떠한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고 A군과 친구들로부터 관련 사실을 들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승용차 교통 표지판 들어받아

운전자 등 돌 사망

지난 30일 밤 11시45분께 광주시 광산구 용봉동 한 도로에서 김모(23)씨가 운전하던 K5 승용차가 교통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아 김씨와 동승자

이모(여·20)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이들은 나주의 한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광주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차량이 렌터카였던 점 등으로 미뤄 김씨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예약접수 중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개강: 1월 2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영·수·과·합격]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격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서기보 7급 경찰직 소방직 **한빛고시학원** **농업직 9급야간반 기술직 사회복지직 명품강연**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